

만당(亂黨)의 ‘조선학’ 연구와 국학적 전승

- 효당 최범술의 자료수집과 연구를 중심으로 -

채정복*

• 목 차 •

- I. 서언
 - 1. 연구주제
 - 2. 선행연구의 검토
- II. 근대불교학의 국학적 성격
 - 1. 불교계의 ‘조선학’
 - 2. 원효의 재발견
- III. 만당의 ‘조선학’ 연구
 - 1. 만당의 ‘조선학’
 - 2. 『고려대장경』 인경 사업의 국학적 의의
- IV. 효당의 국학적 계승과 정리
 - 1. 『고려대장경』과 원효 연구
 - 2. 『한용운 전집』의 간행
 - 3. 한국 차 문화의 정립
- V. 결어

* 효당본가 반야로차도문화원 본원장,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한국학과 박사.

한글요약

지금까지 일제 식민지 시기 불교계의 항일 결사단체인 만당(卍黨)에 대한 연구는 결성 과정과 독립운동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만당 당원들이 펼친 교육 및 학술 활동과 그 전승에 대해 국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그 전승에 있어서 효당 최범술(1904-1979)이 불교 활동과 차 문화 활동을 중심으로 펼친 국학적 계승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만당의 당원으로서 식민지를 경험한 전환기적 인물인 효당 최범술이 전통에서 근대로의 사회체제의 변화 속에서 일관된 민족정신으로 대내외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그 모든 활동의 지향점이 ‘국학’으로 귀결하였음을 논증함에 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국학’은 단순한 전통의 계승이 아닌 근대적인 민족적 자아의 재발견을 의미한다. 이것은 식민지라는 엄혹한 상황아래 이른바 ‘조선학’이라는 근대적 자각 속에서 불교 수행자이자 지식인이었던 효당의 활동을 통해서 당시 불교계의 근대적 자각과 그 전승이 어떻게 현대의 국학으로 이어져 왔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는 일이다.

효당의 국학을 이루고 있는 기반은 크게 민족불교의 정체성과 대사회적 식, 국학으로서의 원효 교학의 주체성, 한국 차도의 정의(定義)인 한국적 차 살림살이 등이다.

본 논문에서 근대불교계의 실천적 지식인인 효당의 생애에 걸친 활동과 그가 수행한 연구의 성격이 국학으로 귀결되는 것을 논증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의 의의는 효당의 독립운동을 포함한 정치·사회활동과 불교 및 한국 차도의 연구가 실존적인 관점을 기반으로 사회화하고 국학화 하였음을 논증함에 있다. 효당이 완성하지 못한 원효 교학 복원의 완성과 그것에 따른 심도 있는 연구는 후학들에게 남겨진 과제이다.

주제어

조선학, 국학, 한용운, 최범술, 만당, 고려대장경, 사간장경, 해인사, 다솔사, 한국의 차도.

I. 서언

1. 연구주제

만당(卍黨)은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초, 조선 불교계의 청년 엘리트들이 만해(卍海) 한용운의 지도 아래에서 결성한 비밀결사 단체이다. 만당의 결성에는 당시 불교계 핵심적 현안을 자주적으로 확립하고자 하는 불교계 청년운동으로서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친 당원은 비밀엄수를 확약하고 당명에 절대복종하며 어떤 사안에도 기록을 남기지 않는 원칙이 있었다.

이처럼 비밀리에 결성된 만당을 중추(中樞)로 하여 1931년 3월에 불교중앙학림을 기반으로 종래의 ‘조선불교청년회’가 창립대회를 거쳐 ‘조선불교청년총동맹(朝鮮佛教靑年總同)’으로 전환 창립되었고, 1931년 5월 23일에는 만당이 일본 도쿄(東京)에서도 결성되어 대외적으로 ‘조선불교청년총동맹동경동맹(朝鮮佛教靑年總同盟東京同盟)’의 창립을 내세우며 ‘정교분립(政教分立)’·‘교정확립(教政確立)’·‘대중불교화(大衆佛教化)’의 원칙을 천명하였다. 이런 원칙은 일제의 조선불교계에 대한 간섭과 개입을 차단하려는 의도였다.¹⁾ 당시 동경동맹 초대 위원장은 김법린·서기장은 최범술(당시 최영환)·회계장은 한성훈 등이었다.²⁾ 만당의 선언문과 강령은 1933년 12월의 『금강저(金剛杵)』 21호에 실린 강유문의 「십팔인인상기(十八人印象記)」에 당원 명단과 같이 실려 있다.³⁾ 그러나 이것이 직접적으로 비밀조직인 만당을 드러낸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일

1) 최범술, 「청춘은 아름다워라」, pp.147-148(최범술 41-42화)

『국제신보』, 국제신보사, 1975.3.23.-3.24, p.5.

김광식 외, 「종교계의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3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pp.219-220.

2) 姜裕文, 「東京朝鮮佛教留學生沿革一瞥」, 『金剛杵』 21, 金剛杵社, 1933.12.16, p.26.

3) 一佛子, 「十八人印象記」, 『金剛杵』 21, 金剛杵社, 1933.12.16, pp.30-40.

본에서 유학중인 조선불교 유학생들의 『금강저(金剛杵)』를 1931년에 인수하여 그들의 기관지로 운영하면서 학술과 친목을 도모하였다. 특히 그들의 학술적인 성격은 당시 조선의 식자층(識者層)을 지배하던 국학적(國學的)인 이른바 ‘조선학(朝鮮學)’의 성격이 강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국학적’이라 함은 단순한 전통의 계승이 아닌 근대적인 민족적 자아의 재발견을 말하면서 동시에 식민지라는 현실 속에서 민족적인 자아에 대한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던 시기에 당시 불교계의 근대적 자각과 그 전승이 어떻게 현대까지 이어져 왔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

당시 조선 불교계의 안팎에서는 원효(元曉)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인물들과 『고려대장경(高麗大藏經)』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런 배경에는 민족적 정체성 위기에 대한 지식인들의 고민과 일본에 불교를 전파한 우리 역사에 대한 불교계의 재인식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직접적으로 1915년 5월 원효에 대한 금석문인 『고선사서당화비(高仙寺瑞幢和尚碑)』의 발견과 1920년대 일본에서 이루어지던 『고려대장경(高麗大藏經)』을 저본(底本)으로 한 『대정신수대장경(大正新脩大藏經)』의 간행은 당시 국내 여러 지식인들과 일본으로 간 불교계 조선 유학생들에게 큰 자극이 되었다.

이처럼 원효의 저술이 국내외에서 수집되어 정리되던 무렵에 국내에서 최남선은 1918년 조선불교의 정체성에 관련된 여러 편의 글들을 『조선불교총보(朝鮮佛敎叢報)』와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등에 기고하면서 불교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는 1922년에 처음으로 국학(國學)을 의미하는 ‘조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이후 단군을 비롯한 조선의 역사와 문화뿐만 아니라 의천과 『고려대장경』에도 주목하였다. 이후 이른바 ‘조선학’은 1920년대부터 이후 국내에서 우리 학계와 사상계의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 당시 만당의 여러 당원들은 불교계 제일 조선 유학생들의 잡지였던 『금강저』 운영과 기고에도 적극

적으로 참여하였다. 최남선도 조선불교에 대한 관심으로 1925년에 『금강저』 7호에 「조선불교에 대한 내적반성(內的反省)을 촉(促)하노라」를 기고하였다. 같은 해 일본에서는 재일조선인 불교 유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원효대성찬양회(元曉大聖讚仰會)’를 조직하였다. 이후 그들 중 일부인 최범술, 오관수 등은 대장경 연구를 위하여 1928년 ‘삼장학회(三藏學會)’를 주도적으로 조직하였고, 최범술은 귀국 후에는 1937년 해인사에서 『고려대장경』의 인경도감(印經都監)을 맡아서 불교계의 항일비밀결사체인 만당의 당원들과 함께 인경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제 강점기 만당에 대한 연구는 주로 결성과정과 독립운동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만당의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교육 및 학술활동에 대하여 당시 ‘조선학’ 즉 ‘국학’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근거는 후대 『한용운 전집』의 간행위원장을 맡았던 최범술이 만년인 1973년에 그가 저술한 『한국의 차도(茶道)』의 34면에서 국학의 관점을 밝힌 것에 있다.⁴⁾ 그 관점은 그를 중심으로 범(凡) 만당 계열이 주도했던 1937년의 『고려대장경』에 대한 조사 및 인경 사업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밝히는 데 중요한 시각을 제공한다. 최범술은 1937년의 인경 사업에서 발견한 바를 정리하여 1970년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이 발행하던 『동방학지(東方學誌)』 11집에 「해인사사간루판목록(海印寺寺刊鑿板目錄)」으로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서 요(遼)나라 대장경의 잔존본과 원효 및 의상의 저술 일부분, 의천의 문집이 존재함을 학계에 처음으로 밝혔다.⁵⁾

2. 선행연구의 검토

4) 채정복, 『효당 최범술의 생애와 국학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p.221.

5) 채정복, 『효당 최범술의 생애와 국학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p.166.

만당의 ‘조선학’에 관한 선행연구는 그동안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연구 결과의 배경에는 첫째, 불교학계에서는 ‘조선학’ 관련 연구가 거의 전무했으며 특히 만당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된 바가 없었다. 둘째, 사학계에서도 불교권의 ‘조선학’ 관련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⁶⁾ 다만 인물 연구로 최남선이나 다카하시 도루(高橋亨) 등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일부가 있었다.⁷⁾ 그러나 불교계나 만당을 ‘조선학’이라는 전반적인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지어 연구된 바는 아니었다.

다만 불교계와 관련된 인물인 최남선에 대한 김광식⁸⁾과 류시현⁹⁾ 등의 연구와 국문학사적인 시각에서 불교계 언론의 학술 활동 등을 연구한 김종진,¹⁰⁾ 조명제,¹¹⁾ 김기종¹²⁾의 연구가 있었다. 또 근대 원효학에

-
- 6) 일부 소수의 연구사례로 류시현의 연구가 있었다. 류시현, 「1910년대 조선 불교사 연구와 ‘조선학’의 토대 형성」, 『한국학연구』 44,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3, pp.109-136
- 7) 김용태, 「다카하시 도오루(高橋亨)의 조선학」, 『이조불교(李朝佛敎)』와 조선사상의 특성, 『韓國思想史學』 61, 한국사상사학회, 2019, pp.79-106.
- 8) 김광식, 「최남선의 『조선불교』와 범태평양불교청년회의」, 『백련불교논집』 11, 성철사상연구원, 2001, pp.140-170.
김광식, 「최남선의 ‘조선불교’ 정체성 인식」, 『佛敎研究』 37, 韓國佛敎研究院, 2012, pp.67-112.
- 9) 류시현, 「일제하 崔南善의 佛敎認識과 ‘朝鮮佛敎’의 探究」, 『역사문제연구』 14, 역사문제연구소, 2005.
류시현, 「1920년대 최남선의 ‘조선학’ 연구와 민족성 논의」, 『역사문제연구』 17, 역사문제연구소, 2007, pp.155-178.
- 10) 김종진, 「근대 불교잡지의 한글인식과 한글문화운동」, 『불교학연구』 43, 불교학연구회, 2015, pp.149-181.
김종진, 「박한영과 국학자의 네트워크와 그 의의」, 『溫知論叢』 57, 온지학회, 2018, pp.229-260.
김종진, 「『불교진흥회월보』의 전개와 문예 지면의 경향성」, 『문화와 융합』 43,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 pp.429-451.
김종진, 「『조선불교총보』의 전개 양상과 시론(時論)의 지향성」, 『大覺思想』 35, 대각사상연구원, 2021, pp.161-189.
김종진, 「1910년대 불교잡지 『불교진흥회월보』의 학술 담론과 의의」, 『한마음연구』 6, 대행선연구원, 2021, pp.295-335.

대하여 김미영,¹³⁾ 손지혜¹⁴⁾ 등의 연구와 근대불교학의 도입에 대한 김영진¹⁵⁾의 연구가 있었다.

그럼에도 근대불교계의 가장 많은 자료를 섭렵한 1996년 민족사에서 나온 『한국근현대불교자료전집』 69권과 그에 대한 김광식의 해제(解題)인 『한국근현대불교자료전집(해제판)』¹⁶⁾은 만당을 포함하여 근대불교계의 ‘조선학’ 연구에 대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II. 근대불교학의 국학적 성격

1. 불교계의 ‘조선학’

-
- 11) 조명제, 「1920~30년대 허영호의 현실인식과 근대불교학」, 『大覺思想』 14, 대각사상연구원, 2010, pp.137-170.
조명제, 「1910년대 식민지 조선의 불교 근대화와 잡지 미디어」, 『종교문화비평』 30,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16, pp.86-115.
 - 12) 김기중, 「근대 불교잡지의 간행과 불교대중화」, 『한민족문화연구』 26, 한민족문화학회, 2008, pp.377-416.
김기중, 「근대 대중불교운동의 이념과 전개 - 권상로, 백용성, 김태흡의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27, 한민족문화학회, 2009, pp.347-378.
 - 13) 김미영, 「“원효학”의 형성과정 고찰 - 20세기 화쟁담론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38, 한국국학진흥원, 2019, pp.119-151.
 - 14) 손지혜, 「近代期の 元曉 再發見者들 - 鄭昞震, 崔南善, 趙明基, 許永鎬를 중심으로」, 『일본사상』 28, 한국일본사상학회, 2015, pp.95-137.
손지혜, 「근대기 한국불교계는 왜 원효에 주목했는가」, 『불교평론』 17, 불교평론사, 2015, pp.222-247.
 - 15) 김영진, 「한국 근대 불교학 방법론의 등장과 불교사 서술의 의미」, 『한국학연구』 23,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pp.85-115.
김영진, 「근대시기 한국불교계의 유럽불교학 인식과 그 영향」, 『韓國佛敎學』 64, 한국불교학회, 2012, pp.103-133.
 - 16) 金光植 解題, 李哲敎 資料收集, 『韓國近現代佛敎資料全集(解題版)』, 民族社, 1996.

근대 이후 국학인 ‘조선학’과 그 중요 부분인 ‘실학(實學)’의 개념은 신문관(新文館)과 조선광문회(朝鮮廣文會)를 세운 최남선 등에 의해 1920년대 초반에 정의되고 발전하였다.¹⁷⁾ 이것은 구한말 이후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의 하나로 국어·역사·문학·민속 등의 민족문화에 대한 자각과 함께 그 의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1930년대의 대표적인 ‘조선학’이 ‘실학’이었다. 이른바 ‘조선학’의 성립에 있어서 대표적 인물들로는 박은식·신채호·최남선·안환·정인보·문일평 등이 있었다.¹⁸⁾ 이에 대하여 다카하시 도루(高橋亨)의 제자인 경성제대 출신의 사회주의자 김태준(1905~1949)은 1933년 5월 1일 『조선일보』에 기고한 「조선학의 국학적 연구와 사회학적 연구」 상편에서 ‘조선학’을 국학으로 보았다.¹⁹⁾

1) 불교와 ‘조선학’

특히, 1910년대 국학을 주도한 최남선은 불자(佛子)였던 조부와 모친의 영향으로 불교에 호의적이었다.²⁰⁾ 그가 세운 신문관과 조선광문회에

17) 최남선은 1922년 『東明』 6호에 실린 「朝鮮歷史通俗講話」에서 처음으로 국학을 의미하는 ‘조선학’을 주장하였다. 이후 1923년 「朝鮮歷史講話」에서 ‘실학’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崔南善, 「朝鮮歷史通俗講話」, 『東明』 6, 東明社, 1922.10.8., p.11.

崔南善, 『陸棠 崔南善全集』 1, 玄岩社, 1973, p.52.

18) 정출현, 「국학과의 ‘조선학’ 논리구성과 그 변모양상」, 『열상고전연구』 28, 열상고전연구회, 2008, p.7.

19) 金台俊, 「朝鮮學의 國學的 研究와 社會學的 研究」上, 『朝鮮日報』, 朝鮮日報社, 1933.5.1, 조간 p.4, “막연히 조선학이라고 한 것은 조선의 역사학·민속학·종교학·미술학·조선어학·조선문학류…를 총괄한 것으로 편의상 이러한 제목을 가설한 것이다. 오십 년 전이나 삼십년 전 같으면 국학이라고 떠들었을 것을…… 조선 어학에 있어서…”

20) 류시현, 「일제하 崔南善의 佛敎認識과 ‘朝鮮佛敎’의 探究」, 『역사문제연구』 14, 역사문제연구소, 2005, pp.179-180.

김광식, 「최남선의 ‘조선불교’ 정체성 인식」, 『佛敎研究』 37, 韓國佛敎研究院, 2012, p.73.

출입한 불교계의 대표적인 인물들로는 한용운, 범주사 출신 고승 서진하(1861~1925), 개운사 출신 박한영, 불교학자 권상로, 이능화 등이 있었다. 또 대중적으로 알려진 신문관의 출판물로는 1917년 9월 17일에 발간된 장도빈의 『위인원효(偉人元曉)』가 대표적으로 이 무렵에 해인사 지방 학림에 이 책을 읽었던 최범술도 스스로 「청춘은 아름다워라」 41화에서 그 영향을 평생토록 받았음을 토로하였다.²¹⁾ 또한 최남선과의 인연으로 조선광문회를 출입했던 3·1운동의 중요 인사인 임규(1863~1948)는 아들인 임진중을 해인사의 말사인 영원사로 보내어 해인사 지방 학림에서 수학(受學)하게 하였다.²²⁾ 그 밖에도 한용운이 개인적으로 발간한 불교 종합교양지인 『유심(惟心)』도 신문관에서 인쇄되었다.²³⁾ 이후 최범술도 일본 유학 시절이었던 1928년 『금강저』 15호에 기고한 「애도의 일편」²⁴⁾에서 최남선의 시조집 『백팔번뇌(百八煩惱)』에 나오는 「안겨서」를 인용했던 사실과 광복 이후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만난 국학자였던 안재홍(1891~1965)의 글들을 관심 깊게 본 사실을 밝힌 일화²⁵⁾ 등에서 당시의 시대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본래 근대적 불교학의 연구자들은 사찰의 강원과 같은 전통적인 영

21) 류시현, 「일제하 崔南善의 佛敎認識과 ‘朝鮮佛敎’의 探究」, 『역사문제연구』 14, 역사문제연구소, 2005, pp.186-188.

김광식, 「최남선의 ‘조선불교’ 정체성 인식」, 『佛敎研究』 37, 韓國佛敎研究院, 2012, p.91.

오영섭, 「朝鮮光文會 研究」, 『韓國史學史學報』 3, 한국사학사학회, 2001, pp.106-107, pp.124-13.

李智媛, 「1910년대 新知識層의 國粹觀과 國粹保存運動」, 『歷史敎育』 84, 역사교육연구회, 2002, pp.255-256.

張道斌, 『偉人元曉』, 新文館, 1917, p.70.

22) 최화정, 「해인사의 3·1운동」, 『大覺思想』 31, 대각사상연구원, 2019, pp.26-27.

23) 최덕교, 『한국잡지백년』 2, 현암사, 2005, p.494.

24) 崔英煥, 「哀悼의 一片」, 『金剛杵』 15, 金剛杵社, 1928.1.1, p.38.

25) 최범술, 「청춘은 아름다워라」 131(최범술 25화), 『국제신보』, 국제신보사, 1975.2.28., p.5.

향력 아래에 있었으나, 1920년대에 이르러 일본과 유럽 등지에서 전문적으로 ‘불교학’을 익힌 연구자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허영호 · 김법린 · 백성욱 · 김태흡 · 김경주 · 조명기 · 김동화 등이 유럽과 일본에서 진행된 근대 학술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이들은 세계불교학을 국내에 소개하였고 유럽에서 시작된 근대불교학의 보편적이면서 과학적인 문헌학과 역사적 연구에 주목하였다.²⁶⁾ 최범술 또한 이 흐름 속에서 이들과 일본 도쿄(東京)에서 함께 유학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불교계가 근대적 교육의 필요성으로 1906년에 중앙 근대교육 기관으로 명진학교를 설립하였고 1915년에는 선교양종 30본산연합사무소 위원장 강대련이 조선총독부에 설립인가를 제출하여 1915년 7월 15일에 지방학림의 인가를, 11월 5일에는 중앙학림의 인가를 받아 중앙에 전문학교 정도인 중앙학림, 지방에는 보통학교와 중등학교 과정인 지방학림을 설립하게 됨으로써 보통학교 · 지방학림 · 중앙학림의 3단계 근대식 제도를 확립하여 교육체계를 일원화 하였던 것이다.²⁷⁾

또한, 1910년 2월에 간행된 최초의 불교 잡지인 『원종(圓宗)』 이후, 권상로의 『조선불교월보』(1912.2~1913.8), 박한영의 『해동불보』(1913.11~1914.6), 이능화의 『불교진흥회월보』(1915.3~1925.12)와 『조선불교계』(1916.4~1916.6) 및 『조선불교총보』(1917.3~1921.1)가 있었다. 그 외에도 통권 3호까지 나온 한용운의 『유심』(1918.9~1918.12)도 있었다. 이 가운데 『유심』을 제외하고 사실상 교단의 기관지였다.²⁸⁾ 이와 같은 배

26) 김영진, 「한국 근대불교학 방법론의 등장과 불교사 서술의 의미」, 『한국학연구』 23,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pp.86-88.

김영진, 「근대시기 한국불교계의 유럽불교학 인식과 그 영향」, 『韓國佛敎學』 64, 한국불교학회, 2012, pp.112-114, pp.118-119, pp.124-129.

27) 채정복, 『효당 최범술의 생애와 국학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p.23.

28) 조명제, 「1910년대 식민지조선의 불교 근대화와 잡지 미디어」, 『종교문화비평』 30,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16, pp.92-93.

경에는 일제의 식민 통치로 인한 언론 및 출판의 제약으로 1910년대에 식민지 조선에서 간행된 잡지는 약 40여 종 가운데 24종이 종교 잡지였다. 여기에는 유교 1종, 기독교 7종, 천도교 7종, 시천교 3종, 불교 6종 등으로 불교 외에는 주로 기독교와 천도교 계통이 대부분이었다.²⁹⁾

이후 1924년 7월 창간되어 권상로가 발행인으로 통권 108호까지였던 『불교』(1924.5~1933.7)는 한용운이 사장과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취임한 1931년 6월의 84·85합호 이후 교단 혁신과 정교 분립에 관한 논설의 비중이 커졌다. 그리고 『불교』의 속간으로 통권 67호까지였던 『신불교』³⁰⁾(1937.3~1944.12)는 발행인 겸 편집인이 만당의 당원인 허영호로 바뀌면서 『불교』보다 내용 면에서 교리, 불전의 번역, 한국 고승의 탐구가 늘어났다.

그러므로 1910년대부터 각종 불교 계열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1920년대 ‘조선학’의 성립 전후로 유학을 다녀온 유학생들이 있었기에 다음과 같은 단계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조선불교의 중앙교단과 각 사찰들은 근대적 학교설립과 해외 유학을 통해서 근대불교학의 전문연구자들을 양성하였다.

둘째, 근대불교학의 전문연구자들은 연구 및 교육활동과 더불어 불교계의 각종 언론 및 출판을 통하여 흥법과 포교를 위한 문예와 학술을 담당하였고 이를 통하여 일제강점기에 조선불교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2) 불교사의 연구

그러나 1910년대 조선 불교계의 대표적인 연구 경향인 조선불교사의 연구가 가지는 ‘조선학’의 의미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있어

29) 조명제, 「1910년대 식민지조선의 불교 근대화와 잡지 미디어」, 『종교문화비평』 30,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16, pp.89-90.

30) 원래 속간된 정식 제호는 『佛敎』이었다. 解題 金光植, 資料收集 李哲敎, 『韓國近現代佛敎資料全集(解題版)』, 民族社, 1996, p.17.

서 탈중화적인 역사적 자아를 일본의 간섭 없이 설정하는 것이었다. 즉, 단순히 ‘불교학’의 관점만이 아니라 ‘조선학’ 차원에서의 접근이었다.³¹⁾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근대적인 의미의 불교사 연구로서 역사적이고 문헌학적인 접근을 요구하였는데, 문헌에 대한 비평적 연구와 역사적 연구, 그리고 비교연구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근대에 간행되어 주목 받는 조선불교의 역사서로 경성 신문관에서 1917년에 발간한 권상로의 『조선불교약사』와 1918년에 발간한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가 대표적이었다. 이후 국외에서는 식민사관으로 1929년 일본에서 발간한 다카하시 도루(高橋亨)의 『(조선사상사대계)이조불교((朝鮮思想史大系)李朝佛敎)』와 1930년 누카리야 카이텐(忽滑谷快天)의 『조선선교사(朝鮮禪敎史)』 등이 있었다.³²⁾ 이후 1934년에 중앙불전의 에다 도시호(江田俊雄)가 권상로와 공저한 『이조실록불교초존(李朝實錄佛敎鈔存)』과 역시 중앙불전의 교수와 학장을 지낸 김영수(1884~1967)가 1939년에 쓴 『조선불교사고(朝鮮佛敎史稿)』가 있었다.

특히 김영수는 1930년대 후반 이후에 고려의 오교구산(五敎九山)과 오교양종(五敎兩宗)에서 조선 전기의 선교양종(禪敎兩宗)으로 이어지는 교단사의 체계를 구축하였다.³³⁾ 원래 그는 1910년대 후반에 해인사 지방학림에서 후일 만당의 당원이 되었던 최범술, 이용조(이지영) 등을 가르쳤다.³⁴⁾ 1928년 김영수가 중앙불전의 교수가 된 이후 그해 12월에 창간한 교우지인 『일광(一光)』에는 그의 「조선불교와 소의경전」과 더불어

31) 류시현, 「1910년대 조선불교사 연구와 ‘조선학’의 토대 형성」, 『한국학연구』 44,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3, p.110.

32) 김영진, 「한국 근대 불교학 방법론의 등장과 불교사 서술의 의미」, 『한국학연구』 23,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pp.103-104.

33) 김용태, 『조선불교사상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21, p.33.

34) 김영수(金映遂)의 호는 ‘包光’으로 당시 ‘김포광’으로도 불렸다. 최범술, 「三·一運動과 해인사」2, 『대한불교』 289, 대한불교사, 1969.2.23. 채정복, 『효당 최범술의 생애와 국학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p.26, p.89.

서 만당 당원들이었던 최범술의 「우담바라의 재현을 축(祝)하고」, 강유문의 「천하에 고(告)하노라」, 박윤진의 「기우문(祈雨文)」 등이 수록되었다.³⁵⁾

2. 원효의 재발견

그러나 최범술을 비롯한 만당의 많은 당원들이 유학한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일본의 화엄사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인물은 당대(唐代) 법장이었다. 따라서 원효의 저술이 현존하지 않아도 법장의 『탐현기(探玄記)』에 제시된 원효의 교판론은 항상 중요한 관심사였는데, 1915년에 원효의 화엄경소의 잔결문이 발견되면서 이마즈 료가쿠(今津洪巖)가 발표한 「元曉大德の事蹟及び華嚴教義」로부터 원효의 화엄사상이 주된 논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앞서 지적한 대로 국내에서 1915년 5월 원효에 대한 금석문인 『고선사서당화상비(高仙寺瑞幢和尚碑)』의 발견과 1920년대 일본에서 이루어지던 『고려대장경』을 저본으로 한 『대정신수대장경』의 간행은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과 일본으로 간 불교계 조선 유학생들에게 큰 자극이 되었다.

따라서 그 결과로 그들은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는데, 첫째는 기존의 조선 성리학과 달리 탈중화적이면서도 중국 사상에 영향을 끼친 점, 둘째는 동시에 일본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점이었다. 이러한 영향을 받은 인물들로는 장도빈·김영주·정황진·권상로·이능화·최남선·조소양·조명기·허영호·이광수 등을 들 수 있다.³⁶⁾

35) 『一光』 1, 中央佛敎專門學校 校友會, 1928.12, p.2, p.20, p.27, p.34.

36) 김미영, 「“원효학”의 형성과정 고찰 - 20세기 화쟁담론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38, 한국국학진흥원, 2019, pp.124-126.
최재목 외, 「일제강점기(日帝強占期) 원효(元曉) 논의에 대한 예비적 고찰」, 『일본문화연구』 34, 동아시아일본학회, 2010, pp.460-461.

1) 근대의 원효 연구

이러한 근대의 원효에 대한 관심은 크게 전기(傳記)와 연구(研究)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전기로는 근대 최초의 원효와 관련된 저술이었던 1917년 신문관에서 나온 장도빈의 『위인원효(偉人元曉)』, 1933년에 조소앙이 저술한 한문본(漢文本)인 『신라국원효대사명서(新羅國元曉大師傳并序)』, 1942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매일신보』에 소설형태로 연재된 이광수의 「원효대사」가 있었다.³⁷⁾

또한 근대 원효 연구로는 먼저 1918년 김영주의 「제서(題書)에 현(現)한 원효화엄소교의(元曉華嚴疏教義)」, 기존의 연구보다 대폭 늘어난 총 87부 223권의 원효저술을 서명·권수·출처·설명한 정황진의 「일람표 고편서언(一覽表考編緒言)」에 실린 「대성화쟁국사원효저술일람표(大聖和諍國師元曉著述一覽表)」가 있었다. 즉, 1915년에 와시오 준케이(鷲尾順敬)의 39부 95권부터 다카하시 도루(高橋亨)의 45부 59권·모치즈키 신히코(望月信亨)의 45부 89권·장도빈의 49부 97권·최남선의 50여부 100여 권·이마즈 코오가쿠(今津洪嶽)의 53부 112권·정황진의 82부 223권·누카리아 카이텐(忽滑谷快天)의 81부·에다 토시오(江田俊雄)의 87부·1937년에 조명기의 91부 243권까지 근대의 원효저술에 대한 연구 및 확인 작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³⁸⁾

특히, 1925년 12월 15일에는 재일본조선불교유학생 43인은 일본 도쿄(東京) 금강저사에서 ‘원효대성찬양회’를 조직하였다.³⁹⁾ 최범술 등은 발

37) 최재목 외, 「일제강점기(日帝強占期)(1910~1945) 원효(元曉) 논의에 대한 예비적 고찰」, 『일본문화연구』 34, 동아시아일본학회, 2010, p.462, p.470.

38) 최재목 외, 「일제강점기(日帝強占期)(1910~1945) 원효(元曉) 논의에 대한 예비적 고찰」, 『일본문화연구』 34, 동아시아일본학회, 2010, p.460, p.462.

孫知慧, 「近代期の元曉 再發見者들—鄭晄震, 崔南善, 趙明基, 許永鎬를 중심으로」, 『일본사상』 28,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15, pp.108-109.

趙明基, 「元曉宗師의 十門和諍論 研究」, 『金剛杵』 22, 朝鮮佛敎東京留學生會, 1937.1.30, p.21.

기인으로 참여하였다.⁴⁰⁾ 나아가 최범술은 동시에 1928년 5월 14일 43인 중의 하나인 오관수 등과 도쿄(東京) 거주 불교 유학생들의 불교 교리 연구기관으로 ‘삼장학회’를 조직하고 학회의 기관지로서 『무아(無我)』를 격월간으로 발행기로 하였다. 그러나 삼장학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정은 현재 관련 기록이 전해지지 않는다.⁴¹⁾

2) 최남선의 통불교론

그중에서 1918년 이후에 가장 주목되는 원효연구는 1930년 8월 『불교』 74호에 실린 당시 중앙불전의 강사였던 최남선의 「조선불교 - 동방문화사상에 있는 그 지위」로 불교청년단의 최봉수가 영역(英譯)하여 도진호에 의해 1930년 7월 범태평양불교도대회가 열린 하와이에서 영문명 『Korean Buddhism and her Position in the Cultural History of the Orient』로 발표되었다. 여기서 최남선은 원효를 세계불교의 완성자로 지칭하면서 ‘통불교’를 주장하였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이후에 발표된 1937년 1월 『금강저』 22호에 실린 조명기의 「원효종사의 십문화쟁론 연구」와 1941년 12월 『신불교』 31호와 1942년 4월 『신불교』 35호에 실린 허영호의 「원효불교의 재음미」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⁴²⁾

39) 최범술의 연보에는 1924년 12월 5일, 김광식의 연구에는 1926년 12월 15일에 원효대성찬양회를 조직한 것으로 나오지만, 당시 『불교』의 발행일인 1926년 1월 1일과 그에 실린 官報 등의 날짜로 고려해 보면 大正 14년인 1925년이다.

채정복 편, 「曉堂의 功績概要 및 年譜」, 『曉堂崔凡述文集』 1, 민족사, 2013, pp.28-29.

김광식, 『韓國近代佛敎의 現實認識』, 민족사, 1998, p.142.

「佛敎消息」, 『佛敎』 19, 佛敎社, 1926.1.1., p.54.

40) 「元曉大聖讚仰會宣言」, 『佛敎』 19, 佛敎社, 1926.1.1, pp.57-58.

41) 「佛敎彙報」, 『佛敎』 48, 佛敎社, 1928.6, p.97.

김광식, 『韓國近代佛敎의 現實認識』, 민족사, 1998, pp.142-143.

채정복 편, 「曉堂의 功績概要 및 年譜」, 『曉堂崔凡述文集』 1, 민족사, 2013, p.29.

42) 孫知慧, 「近代期の 元曉 再發見者들 - 鄭曉震, 崔南善, 趙明基, 許永鎬를

그러나 최남선이 일본에서 접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통불교론(불교 통일론)’은 메이지(明治) 이후 일본 불교계에 유행한 사조로 무라카미 센쇼(村上專精)의 『불교통일론』처럼 1910년대에 권상로와 박한영에 의해 국내에 이미 소개되었다.⁴³⁾

Ⅲ. 만당의 ‘조선학’ 연구

1. 만당의 ‘조선학’

이 무렵 국내에서 ‘조선학’은 좌우로의 사상적 분화가 일어났던 1930년대 이후에 이르러 ‘실학’을 위주로 민족주의 계열인 정인보 등이 주도한 『여유당전서』의 영인 사업으로 그 정점을 이루게 되었다. 이 사업은 1934년부터 1938년까지 경성 신조선사(新朝鮮社)에서 정인보와 안재홍의 공교(共校)로 외현손인 김성진이 편찬한 154권 76책으로 된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⁴⁴⁾의 발간이었다. 이 무렵 만당의 당원들은 주로 일본에서 『금강저』의 발행과 국내에서 『불교』 및 『신불교』의 간행에 직간접적으로 관계하였다. 특히 1937년 최범술의 주도로 범(凡) 만당당원들은 『고려대장경』의 조사 및 인경 사업을 수행하였다.

1) 『금강저』의 발행과 ‘조선학’ 연구

이러한 만당의 ‘조선학’ 연구 성과가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금강저』

중심으로], 『일본사상』 28,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15, p.11, pp.119-120, p.128.

김광식, 「최남선의 『조선불교』와 범태평양불교청년회의」, 『백련불교논집』 11, 성철사상연구원, 2001, p.141-143.

43) 孫知慧, 「近代期の 元曉 再發見者들-鄭曉震, 崔南善, 趙明基, 許永鎬를 중심으로」, 『일본사상』 28,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15, p.115.

44) 丁若鏞, 金誠鎭 編, 『與猶堂全書』1, 新朝鮮社, 1934, p.7.

로 1924년 5월 1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창간된 재일본불교청년회의 기관지였다. 이 잡지는 최범술을 비롯한 조선 유학생들이 발행하던 『적련(赤蓮)』을 개칭하여 발간한 것으로 31본산에 대한 반발로써 반일적인 성향을 가지고 발간되었다.⁴⁵⁾ 이후 1943년 1월 25일에 발간된 통권 26호로 중단되었다. 이러한 재일 불교청년 단체에서 『금강저』를 펴낸 목적은 창간사에서 새 불교 건설과 사회참여였다.⁴⁶⁾ 그러므로 당시 시대적 영향으로 『금강저』에는 불교학 연구 외에 조선의 역사와 국어연구, 사회와 과학 등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글들이 수록되었다. 그중에서도 조선의 역사와 국어를 다룬 글들은 주로 『금강저』 20호와 21호에 수록되었다. 이는 국내에서 좌우를 막론하고 1930년대에 더욱 성행하였던 당시 ‘조선학’의 흐름으로 그 주제와 내용을 대강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조선의 역사를 다룬 것으로는 『금강저』 20호에 실린 강유문의 「대위국」묘청론이 있었다.⁴⁷⁾ 강유문은 『고려사』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여 요승(妖僧)으로 매도된 묘청을 자주적인 인물로 보고 모화적(慕華的)인 김부식과 비교하였다. 또 같은 호에 실린 장도환의 「정업원과 부인운동과의 역사적 의의」는 조선조의 서얼(庶孽)과 부인 등 가족의 사회제도적인 결합이 가지는 측면에서 비구니의 출가와 승가의 문제를 다루었다.⁴⁸⁾ 그 외에도 조선불교의 교정(敎正)이었던 박한영이 강유문을

45) 이 때 유학생들은 효당처럼 불교계 출신인 河世明, 金相哲, 金鍾哲, 李德琬, 金世愚, 金鳳翼, 張道煥, 李稔昱, 宋芝煥, 金景涼 등의 10여명과 信徒인 100여명의 학생들이었다.

최범술, 「청춘은 아름다워라」 128(최범술 22화), 『국제신보』, 국제신보사, 1975.2.24., p.5.

김광식, 『韓國近代佛敎의 現實認識』, 민족사, 1998, p.139.

46) 朴允進, 「金剛杵續刊에 際하여」, 『金剛杵』 19, 金剛杵社, 1931.11.1, pp.45-47.

47) 姜裕文, 「大爲國 妙淸論」, 『金剛杵』 20, 金剛杵社, 1932.12.8, pp.23-25.

48) 張道煥, 「淨業院과 婦人運動과의 歷史的 意義」, 『金剛杵』 20, 金剛杵社,

통해서 일본 다이쇼(大正) 대학교 이시이(石井) 교수의 질문에 답한 「연담과 인악의 관계」⁴⁹⁾, 박윤진의 「인도 아육왕과 조선 세조대왕에 대하여」가 있었다.⁵⁰⁾ 그러나 박윤진의 글은 인도 아쇼카왕(阿育王)에 대한 내용만이 먼저 수록되었고 이어서 조선 세조에 대한 부분은 연재되지 못하였는데, 이어진 22호가 4년 후인 1937년에 나온 것이 이유로 짐작된다.

또한 국어연구에 대한 글들에는 『금강저』 20호에 실린 허영호의 「고구려원음추정에 대하여」는 국호인 ‘고구려’의 원음을 한자가 아닌 우리말 단어의 음사(音寫)로 보고 그 기원을 추정하였다.⁵¹⁾ 특히 한역된 불경에 의거하여 인도 범어의 음사인 한자음을 참고하여 우리말의 원음을 추정한 점은 특기할 만하였다. 그리고 『금강저』 21호에 실린 박윤진의 「『되』어원의 일고」는 『삼국유사』, 『계림류사』, 이능화의 『조선종교사』, 최남선의 『신자전』, 지석영의 『자전석요』 등의 다양한 문헌적인 근거를 들어 산(山)의 우리말 어원을 고찰하였다.⁵²⁾

결과적으로 제20호와 제21호에서 조선학과 관련된 글들을 처음으로 『금강저』에 기고한 이들은 교정 박한영을 제외하고 모두 만당의 당원들이었던 강유문·장도환·박윤진·허영호였다. 그러나 『금강저』는 21호 이후에는 무려 4년간 휴간이 되었는데, 일제의 식민 교화 정책인 ‘심전개발(心田開發)⁵³⁾’ 운동과 만당과 연계된 조선불교청년총동맹의 내부

1932.12.8, pp.30-33.

49) 朴漢永, 「蓮潭과 仁岳의 관계」, 『金剛杵』 20, 金剛杵社, 1932.12.8, p.34.

50) 朴允進, 「印度阿育王과 朝鮮世祖大王에 對하여」, 『金剛杵』 20, 金剛杵社, 1932.12.8, pp.35-38.

51) 許永鎬, 「高句麗原音推定에 對하여」, 『金剛杵』 20, 金剛杵社, 1932.12.8, pp.7-22.

52) 朴允進, 「『되』語原의 一考」, 『金剛杵』 21, 金剛杵社, 1933.12.16, pp.4-5.

53) 당시에는 ‘心田啓發’ 혹은 ‘心田開發’ 모두를 사용하였다. 「佛敎修養會」,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1935.4.9, 조간 p.2.

적인 분란이 원인이었다.⁵⁴⁾ 그러므로 1937년에 속간된 『금강저』 22호부터 나타나는 연구 경향은 단순히 ‘조선불교’와 관련된 주제로 한정되었다. 대표적으로 조명기의 「원효종사의 「십문화쟁론」 연구」⁵⁵⁾와 석천륜의 「사명당 송운대사와 경철현소의 일면」⁵⁶⁾이 있었다. 이러한 흐름은 마지막 우리말본인 1941년 12월 10일 발간된 제25호에 실린 문동한의 「조선문화 사상과 불교」⁵⁷⁾까지 이어졌다.

특히 이 『금강저』가 주목받는 이유는 1931년 5월 23일 창립된 조선 불교청년총동맹 동경동맹이 조선불교청년회로부터 이를 인수하여 1931년 11월 1일자 19호부터 그 기관지의 성격을 갖게 된 점이었다.⁵⁸⁾ 그 결과로 1933년 12월 16일에 간행된 『금강저』 21호에 직접적으로 만당임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선언문과 강령이 ‘일불자(一佛子)’라는 필명으로 강유문이 쓴 「십팔인인상기」에 실려 있다.⁵⁹⁾ 이에 대하여 이용조는 1964년 『대한불교』 제55호에서 거의 동일하게 만당의 선언문

「中樞院會議」,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1935.4.27, 조간 p.1.

54) 金鎭元, 「『金剛杵』續刊에 際하여」, 『金剛杵』 22, 金剛杵社, 1937.1.30, p.12.

55) 趙明基, 「元曉宗師의 「十門和諍論」 研究」, 『金剛杵』 22, 金剛杵社, 1937.1.30, pp.18-36.

56) 釋天輪, 「四溟堂松雲大師와 景徹玄蘇의 一面」, 『金剛杵』 22, 金剛杵社, 1937.1.30, pp.37-40.

57) 文東漢, 「朝鮮文化思想과 佛教」, 『金剛杵』 25, 金剛杵社, 1941.12.10, pp.42-53.

58) 金光植, 『韓國近現代佛教資料全集(解題版)』, 민족사, 1996, p.156.

59) 「十八人印象記」序頭인 p.30에는 “보라! 三千年法城이 넘어가는 꼴을! 들으라! 二千萬同胞가 혈떡이는 소리를! 우리는 참을 수 없는 義憤에서 일어난다. 이 法城을 지키기 爲하여! 이 同胞를 구하기 위하여! 안으로 敎政의 確立을 關하고 밖으로는 大衆佛敎化를 위하여 佛陀와 自性에 盟誓코 이에 ××을 ×는다. 一, 政敎分立 一, 敎政確立 一, 大衆佛敎化”라고 이용조가 회고한 만당의 선언문과 강령과 거의 동일하게 서술되어 있었다. 一佛子, 「十八人印象記」, 『金剛杵』 21, 金剛杵社, 1933.12.16., pp.30-40.

과 강령을 확인하였다.⁶⁰⁾

이러한 『금강저』의 운영에 참여한 최범술은 1928년 4월 28일 제8회 정기총회의 결과로 이재부(理財部)에서 재정을 관리하였고⁶¹⁾ 이에 대해 『금강저』19호의 재정난으로 강유문이 최범술에게 부탁해서 지인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융통한 일화가 「십팔인인상기」에 보인다.⁶²⁾ 이 무렵 최범술도 주로 불교와 연관된 다양한 주제로 『금강저』에 기고하였다.⁶³⁾

2) 다솔사와 해인사의 활동

1933년 무렵 최범술은 한용운의 권유로 전국불교청년총동맹 3대 위원장에 피선되어 취임하면서 이에 만당 해산을 선언하고 불교청년총동맹 간부들을 개편했다. 집행위원 중 서기장이었던 오관수는 유입시키고, 잡지 『불교』를 발행하는 ‘불교사’의 경영 경비는 장도환, 불교청년운동은 김삼도가 주관하도록 하였다. 즉, 표면적으로는 해산을 주도하였으나 실제로는 만당의 근거지를 1928년부터 그가 주지를 맡은 경남 다솔사(多率寺)로 옮겨서 활동을 비밀리에 이어 나갔다.⁶⁴⁾

60) 이용조는 “〈黨宣言文〉 보라! 三千年法城이 넘어가는 꼴을! 들으라! 우리는 참을 수 없는 義憤에서 敢然히 일어선다. 이 法城을 지키기 爲하여! 이 民族을 구하기 위하여! 向者는 同志요 背者는 魔眷이다. 團結과 撲滅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안으로 敎政을 確立하고 밖으로 大衆佛敎를 建設하기 위하여 身命을 賭하고 果敢히 前進할 것을 宣言한다. 〈綱領〉 一, 敎政分立 一, 敎政確立 一, 佛敎大衆化”라고 회고하였다. 李龍祚, 「내가 아는 卍字黨사건」, 『大韓佛敎』 55, 대한불교사, 1964.8.30.

61) 「消息」, 『金剛杵』 16, 金剛杵社, 1928.6.27, p.44.

62) 一佛子, 「十八人印象記」, 『金剛杵』 21, 金剛杵社, 1933.12.16, pp.36-37.

63) 불교적인 주제로 현존하는 것으로는 1928년 1월에 나온 『金剛杵』 15호 pp.7-11의 「佛陀의 面影」, 1928년 6월에 나온 『金剛杵』 16호, pp.2-8의 「飛躍의 世界」, 1929년 5월에 나온 『金剛杵』 17호 pp.4-12의 「佛陀의 戒(갈음스겔)에 대해서」, 1931년 11월에 나온 『金剛杵』 19호 pp.21-26의 「華嚴敎學의 六相圓融에 對하여」가 있다. 채정복, 『효당 최범술의 생애와 국학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pp.94-95.

이 당시 최범술은 같은 만당의 당원인 쌍계사 주지 박근섭과 명성여학교(현재 동국대 사범대 부속여고)를 서울에 설립하여 초대 교장을 역임하였고, 다술사에는 불교전수강원을 설립하였다. 이것을 ‘다술강원’이라 하였는데 교육과정은 불교와 일반 교육과정을 겸하였고, 보통학교 과정인 보통과(普通科)에서는 불교개설·불교각론·불교사·법요의식·교단규칙·어학·지리 및 역사·수학·자연과학·작업·기예·체육을 가르쳤다. 또한 보통과를 졸업한 이후의 과정인 연구과(硏究科)도 두었다.⁶⁵⁾ 다시 이듬해인 1934년에는 농민자제를 위한 광명학원(현재 봉계초교)을 다술사 인근인 원전에 설립하여 중앙에서 실직한 김법린과 그의 전 가족을 비롯해 허영호와 한보순, 불교계는 아니지만 민속학자인 범부(凡夫) 김정설과 그의 전 가족(범부의 동생인 소설가 김동리도 포함) 등의 범(凡) 만당 당원들이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식적인 터전을 제공하였다.⁶⁶⁾

그러나 이렇게 다술사에 만당의 당원들이 모여들자 이로 인한 당국의 감시로 최범술은 1934년 5월에 사천경찰서에 피검되었고, 다시 7월에는 거창검찰청에 6개월간 피검되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35년 6월에 3개월간 전북 임실경찰서에 피검되었다. 이러한 와중에도 다술사의 불교강원은 해인사 강원과 1935년 9월에 통합되어 개량된 형태로 존속

64) 최범술, 「청춘은 아름다워라」 148(최범술 42화), 『국제신보』, 국제신보사, 1975.3.24., 5면.

최범술, 「청춘은 아름다워라」 150(최범술 44화), 『국제신보』, 국제신보사, 1975.3.28., 5면.

김광식, 『민족불교의 이상과 현실』, 도피안사, 2007, pp.166-178.

65) 『金剛杵』 21, 金剛杵社, 1933.12.16., p.68.

최범술, 「청춘은 아름다워라」 150(최범술 44화), 『국제신보』, 국제신보사, 1975.3.28, 5면.

66) 최범술, 「청춘은 아름다워라」 149(최범술 43화), 『국제신보』, 국제신보사, 1975.3.27., 5면.

김광식, 「다술사와 항일 비밀결사 만당 - 한용운, 최범술, 김범부, 김동리의 역사 단면」, 『불교연구』 48, 한국불교연구원, 2018, pp.146-157.

되었다.⁶⁷⁾

2. 『고려대장경』 인경 사업의 국학적 의의

앞서 기술한 대로 1925년 12월 15일에는 최범술을 포함하여 재일본 조선 불교유학생 43인은 도쿄(東京) 금강저사에 모여서 ‘원효대성찬양회’를 조직하였고 회칙을 정하였다.⁶⁸⁾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조선도 조선의 특색인 종교·철학·문학·예술 등 온갖 문화사상에 체계를 세울 때’가 되었다고 인식한 것과 우리 문화사의 대표적 인물로 원효를 지목한 사실이었다. 또 동시에 이것은 내용상 국학적인, 당시로서는 불교의 ‘조선학’ 선언이었다.⁶⁹⁾

이 무렵에 주목되는 바는 1925년 이 당시 국내의 최남선도 10월 26일 일본에서 간행된 『금강저』 7호에 「조선불교에 대한 내적반성을 촉(促)하노라」를 기고한 사실이다. 일본에서 조선 유학생들의 이와 같은 움직임 또한 『불교』를 비롯한 교계의 소식란으로 생생히 국내에 전달되어 최남선 등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이후 최남선도 1926년 1월 『불교』 19호의 「대각심(大覺心)으로 돌아갑시다」에서 조선의 자랑으로 해인사의 『고려대장경』을 제시하였고, 더 나아가 1930년 8월에 기고한 『불교』 74호 pp.1-5의 「조선불교 - 동방문화 사상에 잇는 그 지위」에서 원효를 강조하였다.⁷⁰⁾

67) 채정복 편, 「曉堂 崔凡述스님의 功績概要 및 年譜」, 『曉堂崔凡述文集』 1, 민족사, 2013, p.31.

68) 「元曉大聖讚仰會會則」, 『佛敎』 19, 京城, 佛敎社, 1926.1.1, p.32.

69) 채정복, 『효당 최범술의 생애와 국학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p.168.

70) 채정복, 『효당 최범술의 생애와 국학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p.169.

1) 인경 사업의 전개

다술사와 해인사의 강원이 통합되자 당시 다술사의 주지로, 1934년 1월부터 주지인 이고경의 부탁으로 해인사의 범무를 겸직했던 최범술과 더불어 만당의 당원들은 자연스럽게 해인사로 그 터전을 확장하였다. 이처럼 만당의 당원들이 해인사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또 다른 계기는 『고려대장경』의 인경 사업이었다. 많은 만당의 당원들이 참여한 이 사업은 1937년 5월에 해인사에 최범술이 인경도감을 맡으면서 그해 11월까지 이루어졌다. 이 작업이 『고려대장경』의 열번째 인경이었다고 전한다.⁷¹⁾ 또한 그동안 해인사 장경판고(藏經板庫)의 동서재(東西齋)에 보관된 채로 방치되어온 『사간판장경(寺刊版藏經)』을 빠짐없이 인간(印刊)하여 11월에는 11391판에 달하는 「해인사사간루판목록(海印寺寺刊樓板目錄)」을 완성하였는데, 이 해인사 사간판에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요(遼)의 대안본(大安本)과 수창본(壽昌本)이 들어 있었다. 특히 이 사간판 속에서 그때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원효의 『십문화쟁론』 상권판 4쪽, 의상의 『백화도량발원문』, 『대각국사문집』 등이 발견되어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지게 되었다.⁷²⁾

결과적으로 ‘조선학’의 관점에서 보면 1934년부터 1938년까지 실학 쪽에서 『여유당전서』의 발간이 이루어진 것처럼 불교계에서는 근세 최초로 1937년 최범술이 주도하여 범 만당계열의 『고려대장경』에 대한 전수조사와 인경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하여 해인사 『사간장경』 속에 묻혀있던 여러 자료들을 새로이 발굴하게 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후 조선어학회사건과 해인사사건으로 인하여 당대에 발표되지 못하였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1970년대에 학계와 대중

71) 최범술, 「청춘은 아름다워라」 52(최범술 46화), 『국제신보』, 국제신보사, 1975.3.31., p.5.

72) 「陝川海印寺에서 “八萬藏經” 印刷 九月一日부터 五十日間」,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1937.9.3, 석간 p.2.
 崔凡述, 「大覺國師文集解題(二)」, 『大覺國師文集』, 건국대출판부, 1974.12, p.19.

에게 소개되었다.⁷³⁾

2) 해인사 사건의 발단

이 무렵 해인사는 주지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이고경의 체제였다.⁷⁴⁾ 뒤이어 1936년 6월의 주지 선거에서 최범술의 은사인 임환경(林在修)과 장보해(張戒憲) 양쪽이 동점으로 나와서 다음해 2월의 재선거 끝에 임환경이 당선되었지만 삼림령(森林令) 위반으로 인한 사찰 재산의 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었다.⁷⁵⁾ 그러자 결국 이고경은 주지직을 사퇴하였고, 8월에는 박보담 등이 최범술에게 사직을 강요하였다.⁷⁶⁾ 이 무렵 장보해가 1937년 9월에 국방헌금으로 25원을 기부하자,⁷⁷⁾ 만당측

73) 채정복, 『효당 최범술의 생애와 국학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p.166, pp.253-254.

74) 이고경은 주지 선거에서 유권자인 본사와 말사 주지들의 84표 중에서 65표의 지지를 얻었다. 「海印寺의 住持 李古鏡氏 當選(陝川)」,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1933.7.14, 석간 p.3.

75) 「住持選舉を繞り 二派醜い抗争」, 『釜山日報』, 부산일보사, 1937.3.13, 석간 p.2.

「住持の選舉を繞る法城のお家騒動 海印寺二百の僧侶反目し醜い抗争更に激化」, 『京城日報』, 경성일보사, 1937.3.16.

서울대 중앙도서관소장 신문스크랩자료 「新聞切抜：朝鮮關係；14. R.중교.교육；1937(14)」

「いがみ合ひは本意でない 海印寺住持選舉問題 代表二名都廳へ陳情」, 『釜山日報』, 부산일보사, 1937.3.18, 조간 p.2.

「僧たも冷い奄然たる法 海印寺の中林幻鏡師森林令違反罰金で」, 『釜山日報』, 부산일보사, 1936.12.22, 석간 p.4.

「海印寺の盜伐事件」, 『釜山日報』, 부산일보사, 1936.12.30, 조간 p.3.

「海印寺森林 盜伐問題再展開」,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1937.8.24, 조간 p.3.

76) 「寺財橫領等事實로 海印寺法務收容」, 『조선일보』, 조선일보사, 1937.7.24, 조간 p.8.

「海印寺の内訌 總辭職說擡頭」,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1937.9.2., 조간 p.4.

77) 「國防獻金·慰問金」,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1937.10.24, 조간 p.7.

『佛敎時報』 27, 佛敎時報社, 1937.10.1, p.7.

도 전략적 차원에서 1937년 9월에 국방헌금으로 임환경이 20원, 그의 제자인 최범술을 비롯한 해인사의 대중 51명이 51원 50전을 기부하였고 11월에 해인사가 500원을 당국에 헌금하였다.⁷⁸⁾ 뒤이어 최범술은 12월 말에 그의 뜻과는 다르게 당시 중앙총무원의 결정에 따라 중국으로 위문사로 파견되었다.⁷⁹⁾ 이것은 당시 다술사와 해인사를 중심한 비밀결사 조직인 만당 당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추정된다.⁸⁰⁾ 그럼에도 만당을 비호하던 임환경은 일제에게 해인사의 주지인가를 받지 못하였고, 1938년 주지 선거에서 친일파 설호(雪湖) 변영세가 당선되어 5월에 취임하였다.

그 선거의 결과로 다술사에서 해인사로 비밀리에 만당의 근거지를 확장하려던 당원들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래서 같은 해 8월부터 이어진 만당에 대한 1차 검거 선봉으로 박근섭·장도환·김법린 등이 진주경찰서에 검거되었고, 10월에는 최범술을 비롯한 김범부·노기용·김적음 등 많은 당원들이 경기도 경찰서에 피검되었다.⁸¹⁾

78) 채정복 편, 「효당의 공적개요 및 연보」, 『효당최범술문집』 1, 민족사, 2013, p.33.

『國防獻金·慰問金』,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1937.10.24, 조간 7면.

『佛敎時報』 27, 佛敎時報社, 1937.10.1, p.7.

『佛敎時報』 29, 佛敎時報社, 1937.12.1, p.5.

79) 「敎界消息」, 『佛敎』 10, 佛敎社, 1938.2, pp.30-33.

※ 원래는 중앙교무원 증진 간부들이 갈 예정이었으나 모두 나이가 많고 날씨가 추운 겨울이라, 촉망받는 불교계의 청년 엘리트들을 위주로 다섯 가지 안 중에서 제5안인 최영환(최범술), 이동석, 박윤진 3인으로 결정되었다. 이들은 1937년 12월 22일 오후에 출발하여 1938년 1월 18일에 경성에 도착한 28일간의 위문 행사였다. 이 세 사람은 모두 만당 당원들이었다. 최범술은 이보다 약 한 달 전에도 총독부와 교무원이 상의하여 제의한 만주 봉천 관음사 포교사 취임 요구를 거절한 바 있었다.

80) 채정복, 『효당 최범술의 생애와 국학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p.54.

최화정, 해인사 성보박물관 편, 「해인학림과 만당」,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 아! 호국이어, 나라의 독립을 부르짖다 - 독립운동에 참여한 해인사스님들』, 해인사 성보박물관, 2019, p.82.

이렇게 해인사의 상황이 나빠지자 최범술은 1939년에 ‘기묘다술사하 안거(己卯多率寺夏安居)’ 법회로 일본 천태종과의 불교학술 교류 행사를 다술사에서 개최하여 일제의 감시 속에서도 만당의 터전을 다시 자연스럽게 다술사로 옮겼다. 이 교류행사는 이른바 ‘박열대역사건’ 당시 일본에서 3년간 구속된 최범술의 신원을 보증하며 호의적이었던 일본 천태종 승려인 사카도 치카이(坂戸智海)와의 인연으로 인해 성사된 것이었다. 이 당시 해인사를 비롯한 여러 사찰에서 많은 만당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였고⁸²⁾ 다술사측에서는 김정설·김법린 등의 항일지사가 발표하였으며 행사 다음 날에는 만해의 회갑연이 다술사에서 성대히 열렸다.⁸³⁾

이후 1942년 7월 조선어학회사건으로 만당 당원인 김법린이 홍원에 수감되었고, 1943년에 해인사 홍제암의 사명대사의 비문인 『자통홍제존자사명대사석장비(慈通弘濟尊者四溟大師石藏碑)』가 훼손되는 ‘해인사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비문으로 절의 대중들에게 항일의 역사를 가르친 임환경과 이고경, 다술사의 최범술을 비롯한 많은 만당 당원들이 끌려

81) 10월 2일에 효당은 경기도 경찰국에 4개월간 피검되었다.

채정복 편, 「효당 최범술스님의 공적개요 및 연보」, 『효당최범술문집』 1, 민족사, 2013, p.33.

최범술, 「청춘은 아름다워라」 152(최범술 46화), 『국제신보』, 국제신보사, 1975.3.31, 5면.

82) 이 행사에는 범패 대가인 쌍계사의 조범해 화상, 전통 밀교의 대가인 율사 조영암, 해인사에서 백경하, 이고경, 임환경 老師와 그의 제자였던 오제봉, 통도사의 김구하, 범어사의 김경산 등의 불교계 인사들과 만당의 당원들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통역은 오종식이 맡았다.

최범술, 「청춘은 아름다워라」 152(최범술 46화), 『국제신보』, 국제신보사, 1975.3.31., 5면.

김광식, 「다술사 안거 법회(1939), 개요와 성격」, 『퇴계학논집』 24, 영남퇴계학연구원, 2019, p.172.

83) 이때 한용운의 모습은 『한용운전집』 1의 권두에 실린 양복을 입고 웃는 모습이다. 최범술, 「한용운전집 간행사 및 연보」, 『효당최범술문집』 1, 민족사, 2013, p.436의 사진 참조.

가 심한 고초를 겪었다.⁸⁴⁾ 이 사건을 목격한 김태신의 증언에 따르면, 이고경·임환경과 최범술 등의 만당당원들이 검거된 이유는 일제가 주목했던 중국 상하이(上海)와의 연관성 때문이었다.⁸⁵⁾ 의열단과 임정(臨政)이 있었던 상하이(上海)는 박열과 모의하여 최범술(당시 의열단원 최영환)이 폭탄을 입수한 곳이었다. 고문을 이기지 못한 이고경은 결국 입적하였으며 최범술과 김정설 등은 진주의 감옥을 거쳐 일제 경남도 경찰국 감방에 이감되었고 최범술은 13개월간 수감되었다.⁸⁶⁾ 이때 다솔사의 최범술은 만당 동지 박근섭등과 함께 단재 신채호의 『조선상고사』와 『상고문화사』를 필사한 원고에 황밀을 먹인 뒤, 석탑에 보관하려다가 일제의 사상범 검속령에 검거되어 경남도감방에 13개월간 수감되었다.⁸⁷⁾

IV. 효당의 국학적 계승과 정리

1. 『고려대장경』과 원효 연구

-
- 84) 이지관 편, 『가야산 해인사지』, 가산문고, 1992, pp.1159-1162.
- 85) “중국 上海에 본부를 두고 있는 조선 독립 단체에서 국내로 요인을 파견, 조선 내에서 일시에 들고 일어날 것을 독려하고 있다는 정보가 포착되었다는구나. 그 요원들과 내통하며 독립운동자금을 걷고, 거사 계획을 세운 주모자가 임환경과 최영환(효당)이라고 들었다.”
김태신, 『라홀라의 思母曲』 상, 한길사, 1991, p.263.
김광식, 「이고경의 삶과 만당」,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 7, 대한불교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 2018, p.221.
- 86) 최범술, 「청춘은 아름다워라」 156(최범술 50화), 『국제신보』, 국제신보사, 1975.4.6., 5면.
최화정, 「효당의 항일운동 및 기타사료」, 『효당최범술문집』 2, 민족사, 2013, p.21.
신형로, 「내가 만난 凡夫선생과 曉堂스님」, 『季刊 茶心』 창간호, 계간 다심사, 1993.3, pp.77-81.
- 87) 최범술, 「만해 한용운 선생」, 『효당최범술문집』, 민족사, 2013, p.407.

그러나 이보다 앞서 최범술 등의 만당 당원들이 유학을 하던 일본에서는 다카쿠스 준지로(高楠順次郎) 등이 주도하여 1923년에 대정일체경간행회(大正一切經刊行會)에서 『고려대장경』을 저본으로 삼아서 『대정신수대장경』을 편찬하기 시작하였고, 1권에서 55권까지의 정장(正藏)은 거의가 인도와 중국 및 한국의 찬술들로 1928년 11월에 간행되었다.⁸⁸⁾

정장의 간행이 이루어지기 1년 전인 1927년 10월 무렵에는 다음 해 11월에 간행 예정인 『대정신수대장경』의 최종회원을 조선에서도 모집하였는데, 이 무렵에 최범술은 화장(和裝)과 양장(洋裝)으로 된 『대정신수대장경』을 일본에서 모두 구입하였다.⁸⁹⁾ 그가 『대정장』을 구입하게 된 배경에는 앞서 상술했던 바와 같이 1925년 일본에서 ‘원효대성찬양회’에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던 점과 1928년에 대장경을 연구하는 ‘삼장학회’를 조직하고 기관지 『무아』를 격월간으로 발행했던 사실이 있다.

따라서 이후에 최범술이 1929년 5월 『금강저』 17호에 기고한 「불타의 계(갈음스결)에 대해서」에서 독자적으로 정의(正義)와 정풍(正風)으로 불교의 지계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정풍적인 대표 인물로 원효를 보았던 점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1) 「해인사사간루판목록」과 『대각국사문집』의 발간

최범술은 1937년에 『고려대장경』의 인경 불사를 동감(董監)하던 중에 해인사에 소장된 『국간장경』이외에 『사간장경』의 모든 판본을 한 장도 빠짐없이 인간(印刊)한 후에 잡다한 부분을 정리하고 결책(結冊)하여 그 판본의 서적명목(書籍名目)·권차(卷次)·제차(第次)·판상(板狀)·판형(板型)과 결책된 책자의 크기에 관한 것 등을 자세히 조사하였다. 그 일례로는 판상에 있어서도 완전(完全)·마멸(磨滅)·괴(壞) 또는 판형의 중

88) 윤기엽, 「다이쇼 신수대장경(大正新修大藏經)의 편찬과정과 체재」, 『전자불전』 10, 동국대학교 전자불전연구소, 2008, p.24, pp.31-40.

89) 1925년 조선에서 광고한 구입 가격은 총액기준 和裝 792원, 洋裝 594원으로 배송료는 별도였다. 「官報」, 『佛敎』 10, 佛敎社, 1925.4, p.54.

횡을 센티미터(cm)로서 표시하고 매판(每板)의 행수(行數)와 매행(每行)의 자수(字數) 등을 조사하던 중에 의천의 문집을 발견하게 되었다.⁹⁰⁾ 이후 그 존재를 처음으로 소개한 것이 1970년의 『동방학지』 제11집의 「해인 사사간루판목록」이었다. 이후 최범술은 『대각국사문집』을 해제하여 1974년 건국대학교 출판부에서 출간하였다.

2) 원효 교학의 복원

최범술이 연구한 복원작업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발표된 논문들의 순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① 「해인사사간루판목록」 : 1970년, 『동방학지』 11집⁹¹⁾
- ② 「원효대사반야심경복원소」 : 1971년, 『동방학지』 12집⁹²⁾
- ③ 「판비량론」복원부분 : 1973년, 『건국대학교 학술지』 15집⁹³⁾
- ④ 「『십문화쟁론』복원을 위한 수집자료⁹⁴⁾」 : 1987년, 『원효연구론총 - 그 철학과 인간의 모든 것』

여기서 언급된 그의 복원작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서로 연관된 구조를 이루고 있다.

첫째, 최범술이 『대각국사문집』에서 주목한 부분은 ‘2. 「제분황사효성문(祭芬皇寺曉聖文)」에서 화백가이쟁지단(和百家異諍之端)을 주로 한 문

90) 최범술, 「『大覺國師文集』解題(二)」, 『大覺國師文集』, 건국대출판부, 1974, p.19.

91) 최범술, 「海印寺寺刊鑱板目錄」, 『東方學誌』 12, 연세대 국학연구원, 1970, pp.58-84.

92) 최범술, 「元曉大師般若心經復元疏」, 『東方學誌』 11, 연세대 국학연구원, 1971, pp.281-306.

93) 이 「판비량론」은 복원과정이 생략되었고, 그 복원문만이 pp.21-22에 인용되었다. 李英茂, 「元曉大師著 「判比量論」에 대한 考察」, 『建國大學校學術誌』 15, 건국대학교, pp.17-44.

94) 최범술,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편, 「『십문화쟁론』복원을 위한 수집자료」, 『원효연구론총 - 그 철학과 인간의 모든 것』, 국토통일원, 1987, pp.967-1049.

증무(文證戊)’에서 원효에 대한 고려시대 의천의 해석이었다.

이것은 의천의 제문 중에 “오직 우리 해동보살(元曉)만이 성상을 융회하여 밝히고 고금을 모아 백가(百家)의 이쟁(異諍)의 단서를 화합하고 일대사(一大事)의 지공(至公)의 논의를 얻었다.”⁹⁵⁾라고 된 것 중에 논의 핵심인 성(性)과 상(相), 즉 중관계열의 범성종과 유식 계열의 범상종의 논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는 불교의 무아(空)와 실체에 대한 논쟁을 말한다.⁹⁶⁾

둘째, 최범술은 이를 통해서 ‘1. 원종문류이십이권중제이 [제화쟁론하](圓宗文類十二卷中第二 [題和諍論下])에서 지적된 동이(同異)·진속(眞俗)·색공(色空)·탐유(探幽)와 망상(罔象)’을 고려시대 의천이 원효의 화쟁론에 대해서 이해하고 해석한 시각의 구조로 보았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圓宗文類』卷22 「和諍篇」

“인심은 남북이 다르나 불법은 고금이 같고(人心南北異, 佛法古今同), 부서지지 않는 진리로 속됨을 밝히니 도리어 색으로 말미암아空을 분별한다(不壞眞明俗, 還因色辨空).

저승(幽都)을 찾는 것은 오직 물귀신(罔象)이니 맛있는 것을 잃어버린 어린아이와 같고(探幽唯罔象, 失旨併童蒙),

어떤 집착으로 다툼을 삼는다면 망령된 뜻과 스스로 통합이다(有著斯爲諍, 妄情自可通).”⁹⁷⁾

이것은 결론적으로 고려시대의 의천이 본 화쟁의 의미는 색과 공의

95) 『大覺國師文集』卷第十六「祭芬皇寺曉聖文」, “... 唯我海東菩薩, 融明性相, 隱括古今, 和百家異諍之端, 得一代至公之論. ...”

96) 의천, 이상현 역, 『대각국사집』, 동국대 출판부, 2012, p.333의 미주14 참조.

97) 채정복, 『효당 최범술의 생애와 국학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pp.120-121.

논리인 ‘반야공관(般若空觀)’임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최남선이 원효의 화쟁론을 통불교의 관점으로 본 것과⁹⁸⁾ 상당히 다르다. 그리고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최범술은 1929년의 「불타의 계(갈음사결)에 대해서」에서부터 원효에 대한 해석의 궤를 최남선과는 다르게 독자적으로 해석하였다.⁹⁹⁾ 최범술은 이러한 중도(中道)의 도리를 유(有)와 무(無)의 변증법적인 화쟁론으로 「원효대사반야심경복원소」의 ‘3. 소(疏)에서 보여주는 경의(經意)의 개요(概要)’에서 ‘있다’와 ‘없다’로 간단히 설명하였는데, 이것은 용수보살의 『중론』에서 공을 설명하는 팔부중도(八不中道)를¹⁰⁰⁾ 『금강삼매경』에서 보이는 법(法)에 대한 지장보살의 계송¹⁰¹⁾을 빌려서 ‘유(有)’와 ‘무(無)’로 단순화시킨 것으로 보인다.¹⁰²⁾

2. 『한용운 전집』의 간행

또한 광복 이후 최범술이 수행한 중요한 연구로는 만해의 자료와 기록을 수집하고 정리한 것이었다. 그 대강은 아래와 같다.

1) 한용운 유고의 정리

최범술을 비롯한 한용운의 제자들인 만당 당원들이 문집발간의 뜻을

98) 崔南善, 「朝鮮佛教」, 『佛敎』 74, 佛敎社, 1930.8.1, p.17.

99) 채정복, 『효당 최범술의 생애와 국학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pp.118-121.

100) 『중론』 귀경계에 나오는 ‘八不中道’는 ‘소멸하지도 않고 발생하지도 않으며(不滅不生), 단멸하지도 않고 상주하지도 않으며(不斷不常),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며(不一不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음(不來不去)’이다.

101) 『金剛三昧經』 「總持品」第八(大正藏 9, 373上), “... 爾時地藏菩薩言, ‘法若如是, 法即無持, 無持之法, 法應自成.’ 於是尊者, 而說偈言, ‘法本無有無, 自他亦復爾, 不始亦不終, 成敗則不住.’ ...”

102) 채정복, 『효당 최범술의 생애와 국학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p.125.

처음으로 모은 것은 1945년 5월 한용운의 1주기를 위해서 모인 회합 자리에서였다.¹⁰³⁾ 그러다가 만해의 대기(大基)를 마친 1948년 5월 무렵에 『한용운 전집』의 발간을 위한 간행추진회를 조직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당시에 모인 사람은 최범술을 비롯하여 박광·박영희·박근섭·김법린·김적음·허영호·장도환·김관호·박운진·김용담 등이었다.

이들은 모두 각각 흩어진 한용운의 원고와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렇게 모은 유고(遺稿)는 남정(南汀) 박광이 보관하였으나 곧 일어난 6·25 전쟁으로 문집의 간행작업은 중지되었다. 그 뒤 전쟁이 끝난 뒤에 조지훈과 문영빈을 비롯하여 당시 주로 고려대학교의 학생들이었던 인권환·박노준·서정기·이화형·이기서·변영림 등이 자료를 수집하였고 임종국이 편집을 기획하였으나 박광으로부터 만해의 유고를 건네받은 최범술을 둘러싼 복잡한 정치적 문제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랫동안 지체되어오고 있었다.¹⁰⁴⁾

2) 전집의 간행

이후 최범술은 민동선·김관호·문후근·이철우·인권환·박노준·이화형·조위규 등과 문집발간을 위하여 제3차 간행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신구문화사에서 1973년에 출판하게 되었다.¹⁰⁵⁾ 그러나 먼저 타계한

103) 최범술, 「萬海 韓龍雲 선생」, 『新東亞』 75, 동아일보사, 1970.11, pp.314-315.

104) 이에 대해 효당은 “그런데 선생의 전집 간행은 통문관 주(主) 이경로씨가 맡아서 할 예정이었으나 일반 독자가 적을 『불교대전』, 『불교유신론』 등 불교관계 저서의 간행을 둘러싼 편집상의 이견과 경비의 문제도 결들어 있어 끝내 빛을 못보고 말았다.”고 하였다. 최범술, 「만해 한용운 선생」, 『신동아』 75, 동아일보사, 1970.11, p.315.

김광식, 「한용운 전집 발간과 만해사상의 계승 - 최범술의 활동을 중심으로」, 『만해학보』 17, 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17, pp.125-132.

105) 『한용운전집』 1, 신구문화사, 1973, pp.2-3.

인권환, 『한국문학의 불교적 탐구』, 월인, 2011, pp.240-243.

최범술, 「萬海 韓龍雲 선생」, 채정복 편, 『曉堂崔凡述文集』 1권, 민족사,

박광과 조지훈 등은 간행위원 명단에 실리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서 박노준 등은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¹⁰⁶⁾ 그러나 이것은 한용운의 아들인 한보국의 월북 사실과 해방공간에서부터 이어진 당시 최범술을 둘러싼 유신 체제하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을 박노준과 같은 고려대생들이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¹⁰⁷⁾

특히 최범술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한용운의 연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1971년 외솔회의 『나라사랑』 2집에 먼저 발표하였고,¹⁰⁸⁾ 다시 보완하여 『한용운 전집』에 최종적으로 이를 수록하였다. 이러한 『한용운 전집』 간행업적에 대하여 인권환은 한용운 연구의 시대를 1기인 한용운의 사후부터 1950년대, 2기인 1960년대, 3기인 1970년대로 시대를 분류하면서 그 의의를 설명하였다.¹⁰⁹⁾

3. 한국 차 문화의 정립

또한 최범술은 오늘날 한국에서 품미되고 있는 한국의 차 문화를 새롭게 정립하여 대중화하였다.¹¹⁰⁾ 한국 차 문화의 정립과 대중화를 위한 그의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¹¹¹⁾ 첫째는 최초로 한국 차

2013, pp.435-437.

106) 김광식, 『한용운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2011, pp.426-427.

107) 이 무렵의 상황에 대해서는 김광식의 저술 『한용운연구』의 pp.337-372와 『효당 최범술 문집』 3권 pp.449-638에 수록된 「老佛 微微笑」에 자세히 나온다. 당시에 유신 체제하에서 긴급조치에 걸린 많은 사람들이 최범술이 주석한 다술사를 찾아와 살고 있었다.

108) 최범술 외, 「만해 한용운 선생 해적이(年譜)」, 『나라사랑』 2, 외솔회, 1971, pp.14-22.

109) 인권환, 『한국문학의 불교적 탐구』, 월인, 2011, pp.244-245.

110) 채정복, 「근현대 한국 차 문화를 증흥시킨 초의와 효당」, 『한국불교학』 46, 한국불교학회, 2006, pp.581-604.

111) 채정복, 「근현대 한국 차 문화를 증흥시킨 초의와 효당」, 『한국불교학』 46, 한국불교학회, 2006, p.178.

문화에 대한 개론서를 저술하여 한국 차 문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체계적인 이해를 이끌어내어 대중화시킨 점이다. 둘째는 전국적 규모의 ‘한국차도회’를 결성하여 후일 많은 차 동호회가 생기는 계기가 되게 한 점이다. 셋째는 자신의 증제제차법(蒸製製茶法)을 후학들에게 전승하여 한국의 재차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이다.

1) 『한국의 차 생활사』와 『한국의 차도』집필

『한국(韓國)의 차생활사(茶生活史)』¹¹²⁾는 한국 차 문화에 관해 최범술이 처음으로 저술한 비매품 소책자이다. 이 책을 발간하게 된 계기는 한국 정부 초청으로 내한한 제일거류민 단장 김정주¹¹³⁾가 1966년 11월 23일 경남 사천 다술사의 최범술을 찾아와서 한국의 차 문화에 관해 알고자 함에서 비롯되었다. 최범술이 구술하고 그의 제자들이 받아 적어서 정서한 40여 페이지의 필사본을 김정주가 일본 도쿄(東京)로 가져가 일본어로 번역하여 간행하였다. 이후에 『한국의 차생활사』는 효당이 생존해 있는 동안 7차례에 걸쳐 간행되었다. 이것은 당시 한국 차 문화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여실히 드러낸다. 특히 이 책에서 최범술은 차는 한민족의 불기적(不器的)인 기호식품으로 신라의 김대립이 차의 종자를 가져오기 훨씬 이전인 삼한·한사군 시대 이전에는 백산차가 있었을 것이라고 서술하였다.¹¹⁴⁾ 또한 ‘茶’ 자의 발음은 ‘짜(丈加反)’·‘타(宅加反)’로 되어있는 『강희자전』 등의 문증으로 ‘차(chā)’라고 발음해야 옳다고 하였다.

이후 나온 최범술의 『한국의 차도(茶道)』¹¹⁵⁾ 1973년 8월 30일에

112) 최범술, 『韓國茶生活史』, 서림인쇄사, 1967.

채정복 편, 『효당최범술문집』 2, 민족사, 2013, pp.248-280.

113) 일본의 성행한 차 문화에 위압감을 느끼던 그가 한국 정부 초청으로 내한했을 때 한국의 차 문화를 알고자 소개를 받아서 다술사로 최범술을 찾아온 것이었다.

114) 채정복편, 『효당최범술문집』 2, 민족사, 2013, p.263.

308면(面)의 국판체제로 출판된 한국 최초의 상업출판의 단행본인 차도개론서였다. 그 내용은 아홉 장의 본문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목차는 서언·차 생활의 사적 고찰·차도용심 - 차 생활의 실제·차도·차례·차와 선·차와 멋·한국의 차인들·차의 내일을 위하여 등의 체제이다. 물론 효당의 차서가 나오기 이전에 한국의 차 문화에 관한 문일평(1888~1939)¹¹⁶⁾의「차고사(茶故事)」가 있었다. 그러나 「차고사」는 일제강점기 『조선일보』에 1936년 12월 6일부터 1937년 1월 17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문일평이 연재한 글들의 칼럼 모음집이다. 그의 사후(死後)인 1939년 『조선일보』 출판부에서 수집 정리한 『호암전집(湖巖全集)』 2권에 수록되어 있다.¹¹⁷⁾

2) 한국차도회의 발족

‘한국차도회(韓國茶道會)’¹¹⁸⁾는 차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술사에 살고 있는 효당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결성 발족한 최초의 전국규모인 차 동호회였다. 그 발족의 계기는 차 애호가들의 요청에 따라

115) 『韓國의 茶道』 초판본은 ‘보련각’에서 1973년 8월 20일에 처음 출판되었을 때 인지대를 붙이지 않고 유포되었다. 그 후 최범술과 출판사 간에 정식 계약을 맺고서 인지대를 붙여서 1975년 11월 20일에 인쇄하여 세간에 유포하였다. 그리하여 『韓國의 茶道』 초판본은 인지대가 없는 1973년 8월 20일 초판본, 그 초판본 잔류본에 인지대를 덧붙인 것, 1975년 11월 20일 추가 인쇄한 것 등 세 가지 형태가 모두 초판본으로 세간에 유포되었다. 효당 최범술의 入寂이후, 1980년에 재판되었다. 최범술, 『韓國의 茶道』, 보련각, 1973.

116) 湖巖 문일평(1888-1939)은 일제강점기 한국의 국학자이면서 독립운동가로 그의 말년에 조선일보 편집 고문으로 활약하며 조선의 다양한 문화에 관해 기고를 한 언론인이었다.

117) 채정복, 「근현대 한국 차 문화를 증흥시킨 초의와 효당」, 『한국불교학』 46, 한국불교학회, 2006, pp.181-183.

118) 채원화, 「효당과 한국차도회, 그리고 한국차인회」, 사단법인 한국차인연합회 10주년 특대호 『茶人』, 한국차인회, 1990.1, pp.13-19.
채정복 편, 『효당 최범술문집』 3, 민족사, 2013, pp.679-691.

최범술을 시봉한 필자의 수년간에 걸친 적극적 진언과 준비로 출발하였다.¹¹⁹⁾ 이후 전국적인 관계망으로 한국차도회가 결성되었다. 종장(宗匠)인 효당을 회장으로 하여 본부를 ‘원효불교 다술사’로 하고, 지회는 서울지구(지회장 안광석), 부산지구(지회장 오제봉), 대구지구(지회장 김종희), 광주지구(지회장 허백련), 대전지구(지회장 윤병규), 진주지구(지회장 정명수)로 하였다. 실제적인 일을 주관해 나가는 데는 상임이사 박종한, 재무이사 필자 등으로 정하고 간사는 일의 용이함을 위해 다술사 측의 구성원 약간 명으로 했다.

이렇게 한국 차 문화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야심찬 취지와 계획을 가지고 제1차로 결성 발족된 한국차도회는 그해 8월에 다술사에서 다시 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다술사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종단분쟁과 최범술의 병환 치료를 위해 다술사를 떠나 서울로 오게 됨으로써 8월의 총회는 무산되었다.¹²⁰⁾ 1978년 5월 10일 제자

119) 曉堂 최범술의 평소 지견은 ‘차’란 오고가며 자연스럽게 마시면 되는 것이지 무슨 조식을 하여 역지를 쓰면 안 된다고 여겨 탐탁치 않아 했다. 이에 필자가 1972년경부터 약 5년 동안 한국차도회 설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간곡히 진언하여 허락을 받아 정관 1조·2조의 기초 작업과 초대장 작성 및 발송 등 행사를 실질적으로 기획 진행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산증 절간의 행사라서 하루를 유숙해야 하므로 필자는 그 전해 가을부터 행사를 위한 절간 음식과 이부자리 준비를 하였으며 행사 당일에는 부산대학교 불교학생회 학생들이 와서 도왔다.

120) 채정복, 「효당사의 일대기」, 『효당 최범술 문집』 3권, 민족사, 2013, pp.131-160 참조.

※ 우리나라 불교계는 해방 이후 1967년도 무렵까지 종단구별 없이 ‘대한불교’로 통칭했다. 최범술은 한국의 종단이 宗祖의 연원을 중국에 두는 것은 큰 잘못이라 비판하면서 자신이 평생 호모해온 원효의 교리 사상의 기반위에 혁신적인 사회참여의 성격이 강하게 내포된 ‘원효불교’ 교단설립을 1962년 3월부터 추진해 왔으나 문공부의 ‘불교재산관리법’ 때문에 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였다. 다술사는 일제강점기에는 해인사 말사로, 광복 이후는 쌍계사 말사로, 복잡한 교계(敎界)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시 범어사 말사로 편입되었다. 당시 다술사는 외부적 세력 분포에 관계없이 수십 년간 그냥 불교계의 거목 효당 최범술이 주석하는 절이었다.

들의 배려로 서울 종로구 팔판동으로 처소를 옮긴 최범술은 이듬해 1979년 1월 6일에 거처한 곳에서 한국차도회의 제2차 발기회를 가졌다. 또한 1978년 5월 22일 서울 팔판동 처소에서 김종규·권오근·김충렬·중광·김지전·김중해·김상현·전보삼·오윤덕·채원화(필자)·국악인 김한희·임이조 등 후학들과 함께 ‘차선회(茶禪會)’를 창립하였다. 그러나 한국차도회와 차선회는 한국 차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해온 최범술이 1979년 7월 10일 입적함으로써 그 기능을 멈추게 되었다.¹²¹⁾

그 외 최범술의 증차(蒸茶) 제차법도 전승되어 후학들에 의해 오늘날 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V. 결어

서언에서 말한 바처럼 지금까지 일제 강점기 불교계의 항일 결사단체인 만당에 대한 연구는 주로 결성 과정과 독립운동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일제 식민지라는 상황 속에서 만당을 중추로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교육 및 학술활동에 대하여 ‘조선학’ 즉 ‘국학’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여기에서의 ‘국학’은 단순한 전통의 계승이 아닌 근대적인 민족적 자아의 재발견을 의미한다. ‘조선학’은 1920년대 이후 국내에서 우리 학계와 사상계의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았다. 본 연구에서는 당시 조선의 식자층을 지배하던 ‘조선학’ 즉 ‘국학’이 불교계에서는 어떠한 과정으로 근대적 자각과 함께 전승되어 현대의 국학으로 이어져 왔는가를 살펴보았다.

1910년대 제일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이 땅에서 자생적 깨달음을 이룬 원효를 재발견하였고 이러한 움직임은 이어져 1920년대 만당 당원으로

121) 채정복, 『효당 최범술의 생애와 국학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p.196.

일본에 유학 중인 최범술 등이 ‘원효대성찬양회’와 ‘삼장학회’를 주도적으로 조직하였다. 그들은 민족적인 자아실현의 요구 속에 원효를 사상사적인 측면에서 국학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우리 문화사의 대표적 인물로 원효를 지목한 사실은 불교계의 ‘조선학’ 선언이었다. 불교계에서의 ‘조선학’의 의미는 탈중화적인 조선불교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조선학’의 흐름에 만당 당원들이 앞장섰다. 그들은 국내외에서 결성된 만당을 중심으로 사회 참여적인 성격을 표방하는 『금강저』에 조선의 역사와 국어연구 등을 적극적으로 기고하였다.

귀국 후 최범술은 ‘조선불교청년총동맹’의 3대 위원장이 되어 동지들과 함께 다솔사와 해인사를 중심으로 만당을 재건하여 조선의 역사와 국어를 교육하며 활동하였다. 최범술은 1937년 범 만당 동지들과 함께 해인사의 국간관 『고려대장경』을 인정하는 작업을 주도하였다. 그때 그동안 해인사 동서재에 방치되어 있던 『시간장경』도 최초로 전수조사하여 그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 전수조사에서 『대각국사문집』 완결과 의상의 『백화도량발원문』, 원효의 『십문화쟁론』 상권판 네 쪽 등의 중요한 저술을 발견하였다. 최범술은 그 전수조사한 목록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인 1970년에 연세대학교 국학원의 『동방학지』 제11집에 발표하여 그 문집의 존재를 처음으로 학계에 밝혔으며, 1971년 제12집에 『원효대사반야심경복원소』를 발표하였다.

최범술은 『대각국사문집』과 그 비문을 통해서 의천이 원효의 화쟁을 반야공관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그 해석을 근거 삼아 원효의 화쟁론을 대승불교의 개조인 용수의 반야공관에 기초했음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최범술은 『반야심경복원소』에서 용수의 팔부중도(八不中道)의 설명을 더욱 단순화시켜 ‘유(有)와 ‘무(無)’로 설명하였다. 이는 기존의 해석들이 ‘공(空)’을 단순히 ‘무(無)’로 보는 견해에 대한 논박으로 볼 수 있다. 최범술의 이러한 시각은 원효의 화쟁에 대한 최남선의 통불교이론과도 다르고 세부적인 주석학적인 연구를 수행했던 조

명기, 이기영, 이종의 등과도 차별성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범술은 원효를 흐름의 결을 따른 정풍적인 존재로 정의하였고 이 흐름의 결을 대사회성에 대한 인식의 결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외 1945년 5월, 만해 1주기 회합 자리에서 최범술은 만해의 제자들의 스승 만해의 문집 발간의 뜻을 모아 간행추진회를 조직하였다. 흩어져 있는 유고를 수집하여 여러 어려운 과정을 거친 후, 최범술은 한용운의 연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먼저 1971년 외솔회의 『나라사랑』 2집에 발표하였고, 드디어 1973년에 『한용운 전집』이 간행되었다.

또한 최범술은 한국 차 문화 정립을 위해 활동하였다. 한국 최초의 상업판 단행본인 『한국의 차도』를 출판하여 한국 차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였다. 이 책을 통해 중국의 차성(茶聖)으로 일컫는 육우에 대비하여 우리의 초의를 재발견하여 한국 근대 차 문화의 중흥조로 추앙하고 초의의 ‘차선일미(茶禪一味)’사상을 대중화시켜 차 문화사적 가치를 확립하였다. 그 외에도 증차 제차법을 전승하고, 처음으로 전국적 차 동호인 관계망으로 ‘한국차도회’를 발족시켜 한국의 차문화를 일반에게 보편화시켰다.

최범술의 차도관은 불교 정신과 민족정신을 토대로 누구나 차 생활을 할 수 있다는 평등성에서 출발하여 간 맞는 차를 음미하며 환희로운 자비심으로 만물을 살려지게 하는 차 살림살이였다. 효당의 실제 차 생활은 검박하고 실용성과 응변성이 강하며 자연스러움을 중시했다. 특히 최범술의 ‘차살림살이’는 기존의 동양의 체용론에서 벗어나 순수 우리말인 ‘살림살이’를 통하여 실존을 넘어선 실행의 의미로 체화시켜서 국학적인 정체성을 확립하였다.

위에서 살펴본바, 불교계의 비밀향일결사 단체인 만당의 민족적 자아의식과 그 정체성 확립을 위한 만당의 ‘조선학’ 연구와 아울러 최범술의 민족불교의 정체성에 대한 자각과 대사회적의식, 주체성을 지닌 원효교학의 복원연구, 향일투쟁과 조선학의 중요 인물이었던 한용운 전집

발간, 한국 차도의 정의(定義)와 한국적 차 살림살이는 국학의 성격으로 규정지을 수 있으며 불교계 국학의 전승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원전>

- 『금강삼매경』
『대각국사문집』, 건국대출판부, 1974.
『여유당전서』, 신조선사, 1934.
『한국근현대불교자료전집』 1~69권, 민족사, 1996.

<단행본>

- 김광식 외, 「종교계의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3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김광식 해제, 이철교 자료수집, 『한국근현대불교자료전집(해제판)』, 민족사, 1996.
김광식, 『한용운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2011.
김광식, 『민족불교의 이상과 현실』, 도피안사, 2007.
김광식, 『한국근대불교의 현실인식』, 민족사, 1998.
김용태, 『조선불교사상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21.
김태신, 『라홀라의 사모곡』 상, 한길사, 1991.
이지관 편, 『가야산 해인사지』, 가산문고, 1992.
인권환, 『한국문학의 불교적 탐구』, 월인, 2011.
장도빈, 『위인원효』, 신문관, 1917.
최남선, 『육당 최남선전집』 1, 현암사, 1973
최덕교, 『한국잡지백년』 2, 현암사, 2005.
최범술, 『한국의 차도』, 보련각, 1973.
최범술, 『한국차생활사』, 서림인쇄사, 1967.
최범술, 채정복 편, 『효당 최범술문집』 1~3권, 민족사, 2013.
한용운, 『한용운전집』 1~6권, 신구문화사, 1973.

<학위 및 학술논문>

- 채정복, 『효당 최범술의 생애와 국학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 김광식, 「다솔사 안거 법회(1939), 개요와 성격」, 『퇴계학논집』 24, 영남퇴계학연구원, 2019.
- 김광식, 「다솔사와 항일 비밀결사 만당-한용운, 최범술, 김범부, 김동리의 역사 단면」, 『불교연구』 48, 한국불교연구원, 2018.
- 김광식, 「이고경의 삶과 만당」,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 7, 대한불교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 2018.
- 김광식, 「최남선의 『조선불교』와 범태평양불교청년회의」, 『백련불교논집』 11, 성철사상연구원, 2001.
- 김광식, 「최남선의 ‘조선불교’ 정체성 인식」, 『불교연구』 37, 한국불교연구원, 2012.
- 김광식, 「한용운 전집 발간과 만해사상의 계승-최범술의 활동을 중심으로」, 『만해학보』 17, 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17.
- 김기중, 「근대 불교잡지의 간행과 불교대중화」, 『한민족문화연구』 26, 한민족문화학회, 2008.
- 김기중, 「근대 대중불교운동의 이념과 전개 - 권상로, 백용성, 김태흡의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27, 한민족문화학회, 2009.
- 김미영, 「『원효학』의 형성과정 고찰 - 20세기 화쟁담론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38, 한국국학진흥원, 2019.
- 김영진, 「한국 근대 불교학 방법론의 등장과 불교사 서술의 의미」, 『한국학연구』 23,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 김영진, 「근대시기 한국불교계의 유럽불교학 인식과 그 영향」, 『한국불교학』 64, 한국불교학회, 2012.
- 김용태, 「다카하시 도오루(高橋亨)의 조선학」, 『이조불교(이조불교)』와 조선사상의 특성, 『한국사상사학』 61, 한국사상사학회, 2019.
- 김종진, 「근대 불교잡지의 한글인식과 한글문화운동」, 『불교학연구』 43, 불교학연구회, 2015.
- 김종진, 「박한영과 국학자의 네트워크와 그 의의」, 『은지논총』 57, 은지학회, 2018.
- 김종진, 「『불교진흥회월보』의 전개와 문예 지면의 경향성」, 『문화와 융합』 43,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
- 김종진, 「『조선불교총보』의 전개 양상과 시론(時論)의 지향성」, 『대각사상』

- 35, 대각사상연구원, 2021.
- 김종진, 「1910년대 불교잡지 『불교진흥회월보』의 학술 담론과 의의」, 『한마음연구』 6, 대행선연구원, 2021.
- 류시현, 「일제하 최남선의 불교인식과 ‘조선불교’의 탐구」, 『역사문제연구』 14, 역사문제연구소, 2005.
- 류시현, 「1910년대 조선불교사 연구와 ‘조선학’의 토대 형성」, 『한국학연구』 44,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3.
- 류시현, 「1920년대 최남선의 ‘조선학’ 연구와 민족성 논의」, 『역사문제연구』 17, 역사문제연구소, 2007.
- 오영섭, 「조선광문회 연구」, 『한국사학사학보』 3, 한국사학사학회, 2001.
- 윤기엽, 「다이쇼 신수대장경(大正新修大藏經)의 편찬과정과 체제」, 『전자불전』 10, 동국대학교 전자불전연구소, 2008.
- 이영무, 「원효대사 저 「판비량론」에 대한 고찰」, 『건국대학교 학술지』 15, 건국대학교.
- 이승윤, 「대한제국기 불교계 학교의 설립과 운영」, 『청람사학』 11, 청람사학회, 2005.
- 이지원, 「1910년대 신지식층의 국수관과 국수보존운동」, 『역사교육』 84, 역사교육연구회, 2002.
- 손지혜, 「근대기의 원효 재발견자들 - 정황진, 최남선, 조명기, 허영호를 중심으로」, 『일본사상』 28,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15.
- 손지혜, 「근대기 한국불교계는 왜 원효에 주목했는가」, 『불교평론』 17, 불교평론사, 2015.
- 정출현, 「국학과의 ‘조선학’ 논리구성과 그 변모양상」, 『열상고전연구』 28, 열상고전연구회, 2008.
- 조명제, 「1920-30년대 허영호의 현실인식과 근대불교학」, 『대각사상』 14, 대각사상연구원, 2010.
- 조명제, 「1910년대 식민지조선의 불교 근대화와 잡지 미디어」, 『종교문화비평』 30,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16.
- 최범술,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편, 「『십문화쟁론』복원을 위한 수집자료」, 『원효연구론총 - 그 철학과 인간의 모든 것』, 국토통일원, 1987.
- 최범술, 「元曉大師般若心經復元疏」, 『東方學誌』 11, 연세대 국학연구원, 1971.

- 최범술, 「海印寺寺刊鑲板目錄」, 『東方學誌』 12, 연세대 국학연구원, 1970.
- 채정복, 「근현대 한국 차문화를 중흥시킨 초의와 효당」, 『한국불교학』 46, 한국불교학회, 2006.
- 최재목 외, 「일제강점기(日帝強占期)(1910~1945) 원효(元曉) 논의에 대한 예비적 고찰」, 『일본문화연구』 34, 동아시아일본학회, 2010.
- 최화정, 「해인사의 3·1운동」, 『대각사상』 31, 대각사상연구원, 2019.
- 최화정, 해인사 정보박물관 편, 「해인학림과 만당」,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아! 호국이어, 나라의 독립을 부르짖다 - 독립운동에 참여한 해인사스님들』, 해인사 정보박물관, 2019.

<잡지 및 신문기사>

- 『계간 다심』
『신동아』
『다인』
『경성일보』
『국제신보』
『대한불교』
『동명』
『동아일보』
『부산일보』
『조선일보』

Abstract

Mandang(亂黨)’s Studies on Joseon and the Transmission
of National Studies
- Focusing on the Data Collections and the National Studies
of Hyodang Choi Beom-sul -

Chae, Jung-bok
(Director of the Panyaro Institute for the Way of Tea)

Until now, research on ‘Mandang’(亂黨), a secret anti-Japanese organization in the Buddhist communit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of Korea, has mainly focused on its formation and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this study I would like to approach its educational and academic activities and their transmission. Especially, I would like to examine the nationalistic succession of Hyodang Choi Beom-sul(1904~1979) focusing on his Buddhist activities and the transmission of Korean tea culture.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how Hyodang Choi Beom-sul, a transitional figure who experienced colonization as a member of Mandang, conducted internal and external activities with a consistent national spirit amid the change of the social system from traditional to modern times, and that the direction of all his activities resulted in ‘national studies’. I wish to argue that ‘national studies’ here means not just what comes after tradition, but the rediscovery of the modern national self. This is a search for an answer to the question of how the modern awareness of the studies on Joseon at that time and how its transmission has been passed down to modern national studies through the activities of Hyodang, a Buddhist practitioner and intellectual, under

the harsh conditions of colonialism.

The foundations of Hyodang's national studies are largely the identity of national Buddhism and social sense, the role of Wonhyo's teaching as a national study, and the Korean way of tea, which is the definition of the Korean way of life.

In this thesis, it is argued that the activities of Hyodang, a practical intellectual in the modern Buddhist world, through his life and the nature of his research, results in national studies. Therefore, the significance of this thesis is to demonstrate that Hyodang's study of Buddhism and the Korean Way of Tea as well his as political and social activities, including the independence movement, was socialized and nationalized based on an existential perspective. The completion of the restoration of Wonhyo studies, which Hyodang failed to achieve and the in-depth study of that is a task left to his descendants.

Key words

Studies on Joseon, National studies, Han Yong-un, Choi Beom-sul, Mandang, Tripitaka Koreana, Scriptures published in temple, Haein-sa, Dasol-sa, the Korean Way of Tea.

논문투고일 : '22. 11. 07. 심사완료일 : '22. 11. 23. 게재확정일 : '22. 11. 23.